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5장 기독교인과 맹세

(『산상설교』 상권 제25장, 인쇄 331~341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3~37)

> ❓ **“진짜야, 맹세해”를 안 하고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걸까? 그리스도인에게 말의 정직은 어디까지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세상 문제가 이렇게 큰데 맹세 같은 사소한 문제를 다룰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답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모세 율법이 맹세를 규정한 본래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위증만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좁혀 버린 왜곡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법정 맹세까지 금하는 뜻으로 읽는 퀘이커교도의 해석을 성경 전체로 반박한다. 그 뒤에 주님이 실제로 금하신 것을 정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 일상 대화의 맹세와 과장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에서 가정까지 번진 거짓의 문제를 짚는다. 결론은 늘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 앞에 산다는 의식만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왜 이런 '작은 문제'를 다루는가

본문은 마태복음 5:21~48에 나오는 여섯 가지 실례 가운데 네 번째다. 주님은 앞의 마태복음 5:17~20에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밝히셨고, 이 실례들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현대 세계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맹세 같은

답한다.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의 큰 문제들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요 통로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서신서 저자들은 교리를 삶의 구석구석과 연결해 풀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높이 노래한 뒤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1. 여섯 실례 중 네 번째, 5:17~20의 연장
2.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명을 받고 있다
3. 우리 삶을 보는 것이 강력한 전도의 길이다
4. 복음은 교리와 함께 작은 일상도 다룬다

> **마태복음 5:17~20**
> 여섯 실례가 풀어내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에베소서 4:25**
> 높은 교리 뒤에 곧장 '거짓말 말라'로 내려오는 바울의 예
>
>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 2. 모세 율법이 맹세를 다룬 본래 목적

제3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모세 율법의 목적을 셋으로 정리한다. 첫째, 타락한 사람의 거짓말하는 경향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삶 전체가 혼란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소한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대던 무분별한 맹세를 막는 것이다. 맹세는 개인이나 나라의 특별한 위기 같은 엄숙한 일에만 쓰도록 남겨 두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큰 원칙과 맞닿아 있다.

1. 주님이 고치신 건 바리새인의 왜곡이다
2. 율법의 목적 1: 거짓말에 굴레 씌우기
3. 율법의 목적 2: 맹세를 중대한 일로 제한
4. 율법의 목적 3: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 **출애굽기 20:7**
>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 바리새인 가르침의 뿌리
>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신명기 6:13**
>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 맹세 자체는 정당함
>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 **레위기 19:12**
>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
>
>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레위기 11:44**
>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라는 율법의 큰 원칙

>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 3. 바리새인의 왜곡: 조문만 지키면 괜찮다

바리새인의 근본 문제는 형식주의였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영)보다 글자(조문)에 관심이 있었고, 조문을 지켰다고 믿을 수만 있으면 만족했다. 간음과 이혼에서 그랬듯 맹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 율법을 위증죄 하나로 좁혔다. 위증은 무서운 죄로 정죄했지만, 위증만 아니면 하늘로도 예루살렘로도 무엇으로든 맹세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성전으로 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다른 맹세는 없다는 식으로 맹세를 갈라 놓았다. 그 결과 엄숙해야 할 맹세가 일상 대화에서 가볍게 남발되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율법주의가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고 경고한다. 예컨대 '세속'을 영화관 가는 것 하나로 정의하고, 그것만 안 하면 세속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잊어버린다.

1. 바리새주의 = 정신보다 조문에 집착
2. 죄를 '위증' 하나로 축소했다
3. 맹세를 구속력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
4. 결과는 일상의 맹세 남발
5. 오늘의 '영화관=세속' 공식도 같은 병이다

> **마태복음 5:33**
> 주님이 인용하신 바리새인의 요약 가르침
>
>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요한일서 2:16**
> 세속은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 4. 주님은 법정 맹세까지 금하신 것인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인가. 퀘이커교도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글자 그대로 받아,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해 왔다. 로이드 존스는 이 해석이 오히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무의식중에 되풀이한다고 본다. 큰 가르침을 법정 맹세 문제로 깎아내리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에 매달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놓치게 된다. 그는 성경 근거를 차례로 든다. 첫째, 하나님이 맹세하는 법을 직접 제정하셨다. 맹세 자체가 악이라면 그런 법을 주실 리 없다. 둘째, 아브라함은 종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하게 했다. 셋째, 주님은 대제사장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하자 침묵을 깨고 대답하셨고, 그 맹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넷째, 바울도 거듭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렀다. 다섯째, 히브리서는 맹세가 다툼을 끝내는 최종 확정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셨다고 논증한다. 결론은 이렇다. 맹세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엄숙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정당하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더한다.

1. 퀘이커식 문자 적용은 또 다른 율법주의다
2. 하나님이 맹세의 법을 직접 주셨다
3. 족장들, 예수님, 바울 모두 맹세를 인정했다
4. 하나님 자신도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셨다
5. 엄숙한 경우의 맹세는 정당하다

> **마태복음 23:23**
>
> 작은 조문에 매달려 더 중한 것을 놓치는 율법주의
>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창세기 24: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마태복음 26:63

주님이 대제사장의 맹세 요구를 정죄하지 않고 응답하심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로마서 9:1

바울이 양심과 성령을 증인으로 세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고린도후서 1:23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히브리서 6:16~18

맹세는 다툼의 최종 확정, 하나님도 맹세로 소망을 보증하심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 5. 주님이 실제로 금하신 것

소극적인 측면을 정리한 뒤, 로이드 존스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첫째, 맹세나 저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을 절대 금하신다. 거리와 기차와 버스에서 흔히 들리는 그 말버릇 말이다. 둘째,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성전과 하나님을 구별하던 바리새인의 계산은 우스꽝스럽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곧 쉐키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상시 대화와 논쟁에서도 맹세가 필요 없다. 넷째, 과장된 호언도 필요 없다. 말은 그저 “예, 예”, “아니요, 아니요”면 충분하다. 주님은 일상의 모든 소통에서 단순한 진실을 요구하신다.

1. 거룩한 이름을 욕설·맹세에 쓰지 말 것
2.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 피조물로도 맹세 금지
3. 성전과 하나님을 나누는 구별은 거짓이다
4. 일상 대화의 맹세와 과장도 불필요하다
5.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진실이다

> **마태복음 5:34~36**
> 하늘·땅·예루살렘·머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와 권한 아래 있음
>
>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 **마태복음 5:37**
>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단순한 진실의 기준
>
>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 6. 거짓의 시대와 우리 안의 바리새인

로이드 존스는 이 가르침이 현대 세계와 직접 닿아 있다고 말한다. 국제 문제의 핵심은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히틀러는 정책 전체를 거짓말 위에 세우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맹세와 엄숙한 약속은 가치를 잃었고, 이는 영국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혼과 부정이 늘어난 것도 사람들이 서약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의 정직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위선도 짚는다. 정치인은 국제협약의 신성함을 웅변하면서 정작 자기 결혼서약에는 충실하지 않다. 우리는 히틀러의 거짓말에는 경악하면서, 곤란을 피하려는 '가벼운 거짓말'은 다르게 여긴다.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의 거짓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장도 듣는 사람에게 거짓 인상을 주므로 거짓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소한 거짓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문제에 끼어들 수도 있다.

1. 국제 불신의 뿌리는 거짓말이다
2. 이혼·부정의 증가도 서약 경시에서 온다
3. 큰 거짓은 비난하고 작은 거짓은 봐준다
4. 과장은 거짓 인상을 주므로 거짓말이다
5. 내 거짓이 남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

> **마태복음 5:37**
>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과장과 꾸밈의 출처
>
>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과장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 7. 유일한 길: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오해를 막는다. 이 가르침은 지나치게 깐깐하고 병적인 자기 검열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다(번역문의 "죄는"은 문맥상 "이것은"으로 읽힌다). 핵심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교제하며 걷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한다. 성령은 모든 과장과 은근한 거짓을 보고 들으시며 근심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도 고난 중에 위협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러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자고 그는 권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1. 병적인 깐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 의식
2. 성령은 모든 과장을 보고 근심하신다
3.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4. 입에 거짓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는다
5. 내 말이 남의 그리스도관을 만든다

> **에베소서 4:30**
>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짓이 성령을 아프게 함
>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 **요한복음 14:17**
>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
>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베드로전서 2:21–23**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맹세
자기 말이 참임을 하나님이나 더 큰 무엇을 증인으로 세워 엄숙히 보증하는 것이다.

위증
맹세해 놓고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죄로 보았다.

제3계명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셋째 계명이다.

율법의 조문과 영
율법의 글자 자체(조문)와 그 글자가 겨냥한 하나님의 뜻(정신)을 구별하는 말이다.

율법주의
규칙의 글자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다.

퀘이커교도(형제사회단원)
이 구절을 근거로 법정 맹세까지 거부해 온 기독교 분파다.

성막과 성전에 머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다.

발등상
왕이 보좌에 앉아 발을 올려놓는 받침으로,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뜻한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주님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위증 금지'로 좁힌 바리새인의 왜곡을 바로잡으셨다.
- 엄숙하고 중대한 경우의 맹세는 성경이 인정하므로, 법정 맹세까지 거부하는 문자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다.
- 금하신 것은 거룩한 이름의 남용, 피조물로 하는 맹세, 일상의 맹세와 과장이다. 기준은 “예, 예, 아니요, 아니요”의 단순한 진실이다.
- 작은 거짓과 과장도 거짓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한다.
- 해답은 늘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과 함께 산다는 의식이며, 거짓 없으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